시민일보

연천군 중면, '인생샷 명소' 댑싸리 정원 조성

조영환 기자 / 기사작성 : 2021-08-01 10:53:13

[연천=조영환 기자] 경기도 최북단인 연천군 중면에 '인생샷'을 남길 만한 드넓은 댑싸리(코키아) 정원이 들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.

연천군 중면행정복지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 민통선 접경지역 임진강변 삼곶리돌무지무덤 앞에 '돌무지 댑싸리 정원'을 조성, 이달 말 개장을 앞두고 있다.

중면 직원들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삼곶리 일원에 면적 약 2만3000㎡(7000평) 규모의 댑싸리 정원을 마련했다.

백제 돌무지무덤 앞에 약 2만2000그루의 댑싸리가 심어졌다.

이 일대는 백일홍, 천일홍, 메리골드, 칸나 등 다채로운 꽃들과 초록색의 댑싸리가 끝없이 이어지는 장관이 펼쳐진다.

가을이 되면 댑싸리가 핑크빛으로 물들어 황화코스모스와 핑크뮬리가 함께 어우러져 무지개처럼 다채로운 풍경을 자아낸다.

유네스코가 인정한 천연 자연환경에 백제시대 유적과 약 7000평에 펼쳐진 댑싸리와 꽃밭이 어우러진 광경이 가히 비현실적으로 아름답다.

댑싸리는 여름에는 녹색, 가을에는 분홍색, 주황색, 빨간색으로 변하는 한해살이 식물이다.

가을이면 빗자루를 만들어 쓰곤 해 흔하게 볼 수 있었던 친근한 식물로, 꽃말은 '겸허, 청초한 미인'이다.

조찬선 중면장은 "댑싸리가 8월 말부터 불긋불긋해지고 9월 초 빨간색으로 물들기 시작하면 돌무지 댑싸리 정원이 새로운 명소로 떠오를 것"이라며 "방문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

공하고 지역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생태자원 보존을 통해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겠다"고 말했다.

[저작권자 © 시민일보. 무단 전재-재배포 금지 - http://www.siminilbo.co.kr]